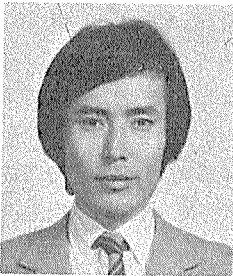


最近 國際石油市場 動向과 OPEC의 対応



尹 洲

〈韓國石油開發公社·企劃調查部〉

I. 序

2 次에 걸친 石油波動 以後 國際石油市場에 는 油價暴騰에 起因하여 流通構造의 急變 이 나타났고, OPEC의 位置도 그 어느 때보다 強化되어 國際石油市場의 動靜은 곧 OPEC의 움직임이란 等價關係가 成立 되었다.

OPEC가 골리앗과 같은 莫強한 힘을 행사하게 되자 世界經濟는 輸入石油의 依存度를 輕減시키기 위해 石油消費節約 政策의 強化, 脫石油化를 위한 代替에너지 開發擴大 및 産業構造 改編, 熱效率의 提高를 爲한 技術革新등으로 對處하여 왔다.

이러한 努力에 편승하여 西方先進國들의 長期的인 景氣沈滯로 因해 對OPEC 原油需要는 直接的으로 影響을 받게 되었다.

1980年 以後 3年間 繼續 世界의 石油需要는 減少現象을 보여 왔는데 特히 1982年 下半年부터 本格化된 過剩在庫油의 放出로 因해 供給過剩 現象이 深化되고 OPEC는 石油市場에 있어 供給量의 統制機能을 事實上 喪失하게 되어 버렸다.

이에 따라 OPEC의 生産量도 79年의 30.92 百萬B/D를 頂点으로 80年 26.87 百萬B/D, 81年 22.49 百萬B/D, 82年 18.44 百萬B/D로 떨어졌으며, 83年 5月 現在 16 百萬B/D에 달하는 등 最底의 水準을 記錄하고 있다.

OPEC의 位置가 이렇게 轉落하게 된 原因은 무엇인가.

82년부터 國際石油市場엔 供給過剩의 現象이 나타나고, 需給에 대한 不安感이 일단은 解消되자 그간 높은 在庫油 維持管理費用 負擔으로 經營上의 壓迫을 느껴온 石油會社들은 大規模로 在庫油를 放出시키었고(82年 平均 180萬B/D, 83年 1/4分期 400萬B/D), 非OPEC의 生産好調로 需給均衡이 와해, 供給過剩이 야기되었다.

이러한 石油市場 內的인 要因들은 OPEC 로 하여금 스스로 油價戰爭을 일으킬 可能性을 잉태케 하였으며, 그간 유지되어온 國際石油市場 特性이 셀러즈마켓에서 바이어즈 마켓으로 轉換됨에 따라 OPEC는 이제까지 堅持하여 왔던 供給者로서의 莫強한 役割을 더 이상 享有할 수가 없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今年 2月 소련과 이집트가 油

배가 하락을 단행, 油價戰爭의 막을 올림으로써 그간 OPEC가 構築하여 왔던 位置가 밑에서부터 흔들리게 되었다.

이에 本稿에서는 最近 國際石油市場에서 OPEC의 영향력이 急速히 쇠퇴하게 된 原因을 살펴보고, 새로운 市場秩序를 定立하기 위한 OPEC의 自救策과 今後의 展望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OPEC 동요의 背景

OPEC 一部會員國 및 非OPEC國家들에 의해 始作된 일련의 움직임은 그간 運用되어 왔던 既存秩序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새로운 油價體系를 定立시켰다.

82年 末 빈 OPEC總會 以後 國際石油市場엔 그 어느 때보다도 油價引下의 可能性이 팽배되어 왔으며, BNOC의 油價引下措置로 OPEC이 와해위기에 몰리게 되자 지난 2月 22日~23日에 리야드에서 GCC石油相會談을 開催하여 問題解決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會員國間의 利害相衝으로 基準油價의 引下 不可避性만 시인하였을 뿐 具體的인 結論을 얻지 못하고 散會하였다.

그후 10여일에 걸친 長期協談 끝에 3月 14日 第67次 OPEC 臨時總會를 열고 基準油價를 5 \$/Bbl 引下하여 29 \$/Bbl로 하고, 사우디를 스윙 프로듀서로 하는 解決策을 發表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同會談을 분수령으로 하여 OPEC는 화려한 옛 神話를 喪失하였으며, 過去와는 달리 새로운 石油市場 秩序를 세우기 위한 參與者로

서의 役割이 부여되었다.

1970年代 카르텔의 莫強한 힘을 背景으로 하여 資源내셔널리즘의 波高를 드높이고 新國際經濟秩序(NIEO: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를 定立할 것을 主張하여 非同盟勢力을 主導하였던 OPEC가 이렇게 동요하게 배경은 과연 무엇인지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世界景氣 沈滯에 따른 對OPEC 原油需要減少 및 北海·멕시코 등 非 OPEC의 生産好調에 따른 低價販賣政策 등으로 OPEC產油比重이 低下되었기 때문이다.

82年 世界全體 產油量은 43.46百萬B/D 로써 前年對比 6.7%가 減少되었는데 그중 OPEC의 產油量은 18.44百萬B/D로써 18.1%가 減少되었다.

世界產油量 중 OPEC의 몹어는 81年을 分기점으로 繼續 減少되어 80年 53.6%, 81年 48.5%, 82年 42.4%에 머물러 그 主導權을 喪失하여 가고 있다.

82年 末 OPEC內 6個國 石油專門家그룹은 OPEC產油量이 79年 31百萬B/D에서 82年 19百萬B/D로 減少된 要因을 發表하였다.

이에 의하면, ① 景氣沈滯 및 消費節約에 起因한 에너지 需要減退 效果로 인한 것이 3.5百萬B/D, ② 先進消費國의 在庫油放出로 인한 效果로 3.5百萬B/D, ③ 石炭·原子力等 代替에너지源 使用增加로 인한 것이 3百萬B/D, ④ 非OPEC 產油國의 增産으로 인한 것이 2百萬B/D이다.

結局 OPEC의 급격한 油價引上 增置로 인하여 構造變化를 가져온 物量은 5百萬B/D에 이르고

自由世界 石油消費推移

(單位: 萬B/D)

國 別	1979	1980	1981	1982	增減率 (82/79)
美 國	1,791	1,647	1,548	1,518	-15.2%
日 本	548	493	470	417	-23.9
西 獨	305	272	246	217	-28.9
프 랑 스	244	226	207	169	-30.7
이 탈 리 아	208	197	193	173	-16.8
英 國	195	167	155	141	-27.7
캐 나 다	191	185	174	160	-16.2
其他 OECD	596	575	544	553	-7.2
OECD 小計	4,078	3,762	3,537	3,348	-17.9
開 途 國	1,081	1,132	1,168	1,178	9.0
自由世界合計	5,159	4,894	4,705	4,526	-12.3

(資料) BP 통계 (79-81) OET (82년)

世界의 石油需給 現況

(單位: 百萬B/D)

구 분	1979	1980	1981	1982	83.1/4 分 期
消 費	51.59	48.94	47.05	45.26	45.2
O E C D	40.78	37.62	35.37	33.48	33.4
開 途 國	10.81	11.32	11.68	11.78	11.8
供 給	53.10	50.06	46.35	43.46	41.2
O P E C	30.92	26.87	22.49	18.44	15.2
非OPEC	18.84	19.53	20.26	21.09	21.1
NGL 및 公 산원순수출 정	3.34	3.66	3.60	3.93	4.9
재 고 조	+1.51	+1.12	-0.70	-1.80	-4.0

* 1983.1/4분기는 추정치임.

(資料) BP 통계, OET, PIW종합.

있는데, 비록 現在の 石油供給 過剩現象이 今後에도 繼續된다 하여도 構造變化分을 勘案할 때 需要가 급격히 增加될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經常収支의 惡化

둘째는 OPEC會員국들의 經常収支 惡化에 따른 增産政策 推進이다.

OPEC의 經常収支는 80年 1,150億달러에 달하는 史上初有의 黒字幅을 보인 이래 82年엔 180億달러의 赤字를 시현하고 今年에도 約62億달러의 赤字가 予想되고 있다.

이러한 經常収支의 어려움은 産油能力에 비해 과도한 開發政策을 推進하고 있는 高吸收國들에 있어 더 심각하다.

81年以後 高吸收國들은 經常収支 黒字國에서 赤字國으로 反轉이 되었는데, 그 主要因은 그간 累積되어온 油머니를 活用한 本格的인 經濟開發에 있다.

이렇게 볼 때 高吸收國들은 經濟開發計劃의 繼續推進 및 巨額에 달하는 對外債務을 償還키 위하여 原油輸出物量을 계속 늘려 나가야 할 立場에 있다.

반면 低吸收國들은 充分한 資金을 確保하고는 있으나, 産業設備上의 問題와 OPEC의 主導的인 位置維持를 目的으로 더 以上 産油量을 줄일 수 없는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會員國間 構造的인 모순의 關係가 쿼타량위반, 割引販賣, 協定의 未遵守라는 악순환을 가져왔고, OPEC自體의 結束力을 저해시키고 있다.

셋째는 OPEC의 油價引下를 予想한 西方先進國들의 在庫油 大量放出事態 發生이다.

그간 高金利등에 영향을 받아 배럴당 石油在庫 管理費用이 7 \$/Bbl까지 上昇하게 되어 石油会社들의 經營이 壓迫을 받게 되었다.

더구나 82年末 OPEC總會 以後 供給過剩이 이루어지고 油價는 今後 安定될 것이란 展望이 대두되자 西方消費國들은 더이상 높은 備蓄水 準을 維持할 當爲性을 喪失하게 되었다.

즉 現物市場에서 公式販賣價格(長期購買)보다

싸게 原油調達이 可能하여지고 需要減少에 따라 發生하는 精油工場 稼動率 低下등에 기인해 備蓄油의 資本コスト와 管理コスト의 負擔을 輕減시키려고 努力을 한 結果라고 볼 수 있다.

結局 83年 初엔 4 百萬B/D의 物量이 石油市場에 流入이 되고, 이것은 對OPEC 石油需要의 減少와 世界石油市場 秩序를 교란시키는 主要因이 되었다.

以外에 中東地域內에서의 王國과 共和國들간 的 갈등, 宗教에 起因된 宗派間의 紛爭들도 OPEC會員國間의 동요를 直接·間接的으로 자극시킨 要因들이 되었다.

Ⅲ. 財政難의 加重

그간 聖域으로만 여겨왔던 OPEC의 基準油價 體制가 붕괴되고, 總生産上限線을 1,750萬B/D로 하되 사우디는 스윙프로듀서로서의 役割을 갖는 등 어려운 協議끝에 가까스로 카르텔의 파괴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었다.

1次 石油危機 時에 288億달러, 2次 石油危機 時에 410億달러에 달하는 油머니를 國際金融市場에 供給하여 莫強한 經濟力을 과시하여 왔던 OPEC가 82年을 고비로 經常収支가 惡化

OPEC産油國의 財政狀況

(單位: 百萬달러, 萬B/D)

區分 國別	財政 保有率 (82末)	對外 債務 (82末)	財政上 最低必 要産油 量	83.3 쿼타량	油價5\$/ Bbl인 하에 따른수 입감소
사우디	165.0	-	680	500	7.2
쿠웨이트	75.0	-	30	105	2.0
UAE	14.0	-	110	110	1.4
카타르	2.0	-	20	30	0.5
小計	256.0	-	840	745	11.1
리비아	14.0	13.0	110	110	1.9
이라크	12.0	2.0	240	240	3.0
나이지리아	12.0	6.0	190	120	1.2
알제리	3.0	10.0	160	130	2.6
가봉	6.2	15.0	160	72.5	1.1
베네수엘라	0.7	2.0	20	15	0.2
에콰도르	16.5	35.5	190	167.5	1.6
인도네시아	1.0	6.0	20	20	0.2
인도네시아	3.6	21.9	160	130	2.2
小計	69.0	111.4	1,250	1,005	14.0
合計	325.0	111.4	2,090	1,750	25.1

되고 점차 資金借入額이 增加推勢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對 OPEC原油 需要不振, 産油國의 輸入 繼續增加, 貿易外支出 및 民間移轉支出이 繼續 增加된 結果에 의한 것인데 이에 따라 OPEC의 海外投資資産도 81年末 1,577億달러에서 82年末엔 1,352億달러로 減少되는 등 全般的인 財政狀態가 緊박되고 海外流動資産의 回收가 급템포로 이루어지고 있다.

原油價 5\$/Bbl引下에 따른 OPEC의 收入減少 予想額은 251億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83年 OPEC 財政 必要資金額 2,343億 달러의 10.7%에 달하고 있는데 과연 이 不足分을 어떻게 效率的으로 調達할 것인가가 OPEC의 當面課題가 아닐 수 없다.

사우디 등 低吸収國에서는 海外予置金 等の 引出形態로 財政必要 不足資金을 充當할 것이고, 이란·이라크등 高吸収國에서는 國際商業銀行을 통한 借入形態로써 所要財源을 充當할 것으로 보인다.

OPEC의 對外借入, 즉 신디케이트 론은 80년 112億달러, 81년 145億달러, 82년 157億달러로 每年 增加推勢를 보여주고 있는데 今年에는 200億달러를 넘어 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재정 緊박에 따라 OPEC會員國들은 經濟緊縮政策을 導入 내지는 強化시키는 方向으로 나가고 있으며, 各種 開發프로젝트의 投資優先 順位를 조정하는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즉 鐵道, 都市計劃등 大型 프로젝트 予算을 먼저 삭감하고, 그 다음 石油化學, 大型建設을 修正하는등 나름대로의 效率的인 予算運用을 圖謀

하고 있다.

사우디의 경우, FY83~84에 約 350億 SR의 赤字予算案을 編成하였다.

全体收入額은 2,250億SR로서 그중 石油收入은 1,534億SR로서 68.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收入은 産油量을 5百萬B/D水準으로 維持하고 그중 4.4百萬B/D의 輸出을 假定으로 策定된 것이다.

輸出價格은 26\$/Bbl(A-H)에서 29.50\$/Bbl(Berri Extra Light)로서 油種別 輸出構成比는 A-Berri가 5%, A-Light가 65%, A-Medium이 12%, A-Heavy가 18%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予算編成은 石油市場을 勘案할때 所要財源의 取得에 어려움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反面 支出은 前會計年度(3,134億SR)對比17.1% 減少된 2,600億SR로 大幅 下向策定 되었는데 특히 프로젝트 關係予算이 1,750億SR에서 1,315億SR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教育, 人力養成, 産業振興補助金 등은 손을 안대고 있는데, 이를 볼 때에 投資優先 順位가 바뀌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리야드로부터 나온 풍문에 의하면, 輸出專門 精油工場(35億달러) 및 潤滑油工場(10億달러)의 建設이 延期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프로젝트 建設지연에 따른 어려움은 인도네시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5월11日 인도네시아政府는 現在 進行中인 經濟開發5個年計劃의 核心事業인 올레핀系 油化工場(16億달러), 芳香族系 油化工場(15億달러), 精油工場(13.5億달러), 알루미늄工場(6億달러)等 50.5億달러 相當의 4大 프로젝트를 經濟與件이 好轉될 때까지 無期限 保留 또는 再調整하기로 決定했다고 報導하였다.

이러한 措置는 總外貨收入의 70%를 占有하고 있는 石油價格이 下落함에 따라 프로젝트에 必要한 財源確保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운 狀態는 送油管 폐쇄로 輸出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라크가 프랑스에 負債130億프랑을 原油로 상환하겠다는 提案에서, 그리고 과테말라가 人접産油國 베네수엘라에 바터去來를 提案하였으나, 現金去來를 理由로 하여 拒否

地域別 신디케이트 론 도입실적

(單位: 억달러)

	1980	%	1981	%	1982	%
라틴아메리카	257	24.1	413	20.2	356	22.5
東 유 럽	50	4.7	43	2.1	33	2.1
O P E C	112	10.5	145	7.1	157	9.9
극 동	116	10.9	178	8.7	234	14.8
비산유아프리카	129	12.1	218	10.6	152	9.6
西 유 럽	271	25.5	329	16.1	336	21.3
북아메리카	129	12.2	717	35.2	309	19.8
計	1,064	100.0	2,043	100.0	1,577	100.0

(資料) EUROMONEY 83.2.

한것이나 IMF가 財政困難 OPEC 會員國에 緊急借款을 提供할 것인가의 여부를 檢討하는 등의 움직임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이렇게 財政의 어려움이 커져가는 狀況속에서 OPEC는 과연 어떠한 自救策을 모색하여 그들의 進路를 잡아나갈 것인가가 今後의 問題이다.

IV. OPEC의 対応戰略

第67次 OPEC臨時總會 以後 OPEC의 莫強한 石油市場 支配力은 事實上 와해되어 버렸으며, 今後로는 OPEC 自体로서가 아닌 全世界 産油國을 상대로 對話와 協議를 통한 새로운 石油戰略案 定立의 必要性이 增大되고 있다.

특히 OPEC와 非 OPEC을 총망라하여 世界 全産油國 機構의 創設에 대한 움직임이 엿보이고 있는 것은 最近 油價引下戰爭때 OPEC는 非 OPEC主要國들과의 接觸을 통하여 어려움을 解決하였던 經驗을 잊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지난 5月初 英國의 에너지相이 쿠웨이트에 도착 Sheik Jaber Al - Ahmed國王 및 Khalifa Al - Sabah石油相과 일련의 會談을 가졌는데, 英國側의 否認에도 不拘하고 世界油價安定 및 OPEC와 非OPEC간의 協力體制 強化策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勿論 이러한 움직임은 그간 OPEC가 推進하여온 非 OPEC産油國에 대한 對話의 광장을 마련하겠다는 基本戰略 下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일단은 소기의 目標을 達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OPEC의 對外에 대한 이러한 움직임은 經濟分野 뿐 아니라 政治分野에까지 擴大되고 있다.

얼마전 Fahd 사우디國王은 蘇聯의 Yuri Andropov 書記長에게 이란 - 이라크戰 종식을 위한 協調親書を 보냈는데 이는 새로운 試圖로 보여진다.

페灣 高位消息通은 이란 - 이라크戰이 中東地域의 安定뿐 아니라, 世界平和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主張하고 蘇聯이 同 戰爭을 종식시키는데 最大限 努力하여 줄 것을 要請했는데, 사우디와 蘇聯은 外交關係가 없는 것을 勘

案할 때, 이러한 接近試圖는 새로운 OPEC 長期戰略의 一部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나카소네 日本首相이 5月初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였을 때 FY 83年 中 675億圓의 借款을 인도네시아에 提供하겠다는 確約은 비록 그것이 民間部門의 問題이기는 하더라도 인도네시아産 原油의 安定確保라는 側面에서 새로운 對話의 연결로 보여진다.

消費國과의 積極적인 접촉

이 외에도 1978년부터 實行되었다가 82년부터 原油價格의 差異때문에 保留되어 온 베네수엘라 - 蘇聯間의 SWAP去來가 再開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OPEC의 積極적인 非OPEC 및 消費國 과의 接觸은 現在와 같은 不確實한 石油市況에 슬기롭게 対処하여 나가는 方法이 되기는 하겠지만, 國際情勢란 것이 經濟外的인 變數에 의하여 左右되는 만큼 OPEC自体로서도 완충지대의 設定이 또한 必要視되고 있다.

얼마전 EC와 페灣 産油國들은 에너지 및 石油市場에 관한 見解 및 情勢의 交換을 目的으로 에너지 特別會議을 갖기로 合意하고 첫 회의를 今年 가을 브뤼셀에서 갖는다고 公表하였는데 多角的인 対応戰略이 OPEC에 의하여 準備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OPEC와 非OPEC간의 對話, OPEC와 消費國간의 對話는 過去 石油波動시 IEA를 中心으로 한 緊急時對策, 長期協力對策등과는 截然不同한 面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5月 2日 UAE의 Otaiba 石油相은 日本의 야마나카通產相을 遂行하고 自國을 訪問한 記者들과의 會見에서 現 新基準油價體制(29\$/Bbl)가 85年 末까지 維持되고 需要回復이 84~85년에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고서, 次期 OPEC 總會에서 世界石油市場 与件變化에 따른 油價調節方案을 提案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이것은 지난 1975년 創設한 長期戰略委員會의 復活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간 急變된 現實에 対処할 수 있도록 原点에서 始作될 것이라는 見解가 支配的이다.

結局 OPEC는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운 國際石油市場 秩序定立 當爲性을 認識하게 되었고, 그것을 解決키 위하여선 產油國과 消費國의 共同關心事를 모색하는 制度的인 窓口가 必要하게 되고 있다.

V. 今後的 展望

사상 유례없는 油價戰 以後 OPEC會員國들의 多角的인 努力으로 國際石油市場은 일단 安定勢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不安要因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옥스포드 에너지 세미나所長인 Robert Mabro는 最近 英國國營石油會社 BIOC가 北海產原油의 販賣難으로 인해 油價를 내릴 可能性이 있으며, 또 한 차례의 油價波動이 야기되어 安定勢를 나타내고 있는 石油市場이 동요될 것으로 展望하였다.

現在까지 OPEC會員國들은 그들이 지난 67次 OPEC臨時總會에서 決議한 事項들을 比較的 잘 이행하고 있는데 만일 石油의 盛需期가 될 今年 가을까지 石油市場의 回復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경우엔 合意事項을 會員國들이 위반할 可能性이 매우 높다.

問題는 最近 油價引下 措置로 인해 西方先進國의 經濟回復 反應이 盛需期 以前에 도래할 것인가의 여부인데, 일단은 今年 下半年부터 在庫物量의 充當등에 의해 回復勢를 나타내고, 現在의 生産上限線을 超過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長期的으로 볼 때, 最近 油價 引下는 各 에너지 價格水準 相關關係에 變動을 超來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에너지 需給構造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

80년 以來 減少되어온 世界石油需要는 高油價로 인한 產業用 燃料의 脫石油化, 熱效率 提高등을 通한 構造的인 것이 있고 景氣沈滯에 의한 一時的인 것이 있다.

世界景氣가 回復되어 一時的인 需要減退分이 다시 增加된다 하더라도 剩餘在庫油가 그간 大量 放出되었기 때문에 今年 初와 같은 混亂狀況이 다시 發生할 可能性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油價에 있어 OPEC의 價格維持政策에 따라 當分間은 現水準을 繼續 維持할 것으로 予想이 되나 不安한 中東情勢로 인해 一時的인 急騰現象은 배제할 수가 없다.

世界石油需要展望

(單位：百萬B/D)

구 분	년도	1982	1983	1984	1985
需要		45.26	44.4	46.5	47.9
O E C D		33.48	32.5	33.7	34.5
開 途 國		11.78	11.9	12.8	13.4
供給		43.46	32.9	46.5	47.9
O P E C		18.44	16.6	19.7	20.7
非OPEC		21.09	21.4	21.8	22.2
其他公營*		3.93	4.9	5.0	5.0
재 고 번 동		-1.80	-1.5	0	0

*NGL 및 공산권의 순수출

向後的 國際石油市場은 비록 OPEC의 地位力이 매우 弱화되었으나, 그래도 繼續 中心의인 役割을 担当할 것으로 보이며, 特히 GCC의 勢力이 擴大되어 온건 立場의 중추세력으로 發言權을 強化시켜 나갈 것으로 予想이 된다.

反面 消費國에 있어서는 IEA와 GCC가 서로의 位置를 主導하며 相互補完的인 關係를 수립하고 技術, 經濟, 調査등 諸分野의 緊密한 協力體制가 強化되어 나갈 것이다.

그러나 中東에 內在되어 있는 政情不安 즉 사우디에 관한 이란의 強力한 도전 및 인근 주변국에 대한 革命輸出기도의 擴大, 사우디의 財政浬박에 기인하여 인근국가에 대한 援助가 격감되고 그로 인하여 사우디의 位置실추등이 繼續 石油需給 및 油價에 長期的으로 影響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배제할 수 없는 것은 소련의 움직임인데, 노후된 油田으로 인해 生産이 급격히 줄어 들고, 新規開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不足되는 石油需要를 위해 南進政策을 強化 中東地域에 대해 軍事行動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政治的인 不安만 불식시킬 수 있다면 84年頃부터 需給均衡이 回復되고 石油市場은 繼續 安定勢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